

새만금 개발 가속화 정부가 적극 나서야

정책토론회서 전담기구 설립·공공주도 매립 등 강조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려면 공공주도의 매립과 전담 기구 설립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군산시에 따르면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글로벌 명품도시 새만금,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기초발제를 통해 “정부는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국비를 제대로 투입해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이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개발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새만금 친화적인 정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주도의 용지매립 원칙에 따른 현 정부 집권 기간 내 매립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게 허 교수 주장이다.

허 교수는 이를 위해 항만, 도로 등 기본 인프라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

에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을 쾌적한 주거기능과 개성을 갖춘 ‘명품 수변도시’로 조성하고 주민과 관광객 등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배후도시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양재 원광대 교수도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추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신규 공사 설립 때 현금출자 규모도 매우 중요하며, 이 자본금의 확보가 새만금 개발 속도와 비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은 공공주도의 매립과 인프라 조성이 중요하다”고 동의하며 2018년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kwangju.co.kr



‘바둑황제’ 조훈현 국수 바둑기념관 개관

10일 영암 월출산 기찬랜드

한국 바둑의 전설이자 바둑황제로 불리는 조훈현 국수의 업적을 기리는 조훈현 바둑기념관이 오는 10일 영암 월출산 기찬랜드에서 문을 연다.

기념관은 기존 기(氣) 건강센터의 용도를 변경하고 내부를 리모델링해 건립했다.

한국은 물론 세계 바둑계에 남긴 조훈현 국수의 업적과 관련한 소장품을 전시하고 한국 바둑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지상 2층(연면적 884㎡) 규모로 조성된 기념관에는 5개의 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을 갖췄다.

또 방문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아날로그 바둑체험실, 가상 바둑 대국이 가능한 디

지탈 바둑체험실, 수장고, 영상실, 강의실도 들어섰다.

전시실에는 조훈현 국수가 한국 바둑 역사상 최초로 세계무대를 제패한 1998년 제1회 응씨배 세계선수권 바둑대회 등 우승 트로피가 전시된다.

도자기 애호가로 유명한 그의 휘호인 ‘無心’(무심)이 새겨진 도자기를 비롯해 총 700여점 기증품 중 200여점을 선보인다.

영암군은 나머지 소장품을 수장고에 보관해 기획전전을 통해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조훈현 국수의 본향인 영암에 한국 바둑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을 계기로 영암을 바둑의 메카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환기자 jbh@kwangju.co.kr



15일 광양제철소 백운아트홀... 오고무·금무·줄타기 등 공연

광양시는 오는 15일 광양제철소 백운아트홀에서 ‘굿GOOD보러가자’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은 전국의 중소도시와 문화

소의 지역 등을 돌며 무형문화재를 비롯한 문화유산과 전통예술을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종합예술공연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명불하전과 팔도유람,

만년행락 등 세 마당으로 나뉘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명불하전’에서는 한국문화재단에 술단의 ‘오고무’ 공연, 국수호 명무(국가 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의 ‘금무’ 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 젊은 소리꾼

이봉근의 다양하고 이색적인 ‘팔도아리랑’도 즐길 수 있다.

한국문화재단예술단의 ‘부채춤’, 김대균 명인의 ‘줄타기’ 등도 이어진다.

문의 061-797-2418.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예술성·실용성 접목’ 강진청자 매출 두 배 증가

郡, 찾아가는 토요일매 등

강진청자 매출액이 두 배 가량 늘었다.

강진군의 다양한 홍보·판매 전략이 성과를 올리면서다.

6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강진 지역 내 축제장을 비롯, 전국 축제장에서 강진청자 홍보와 판매를 펼친 결과, 10월 말까지 강진청자 판매 금액은 총 1억8000여 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강진군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진청자 판매장에서 2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525점, 총 3400여 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매주 토요일 마당 놀토수산물시장에서 ‘찾아가는 강진청자 토요일매’를 열어 410점, 3400여 만원여치를 판매했다.

지난달 열린 남도음식문화대축제에서는 189점, 500여 만원 상당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강진청자를 판매하는 강진청자판매장에서는 최근까지 1억원 이상을 판매했다.

강진군은 전북 무주반딧불축제, 국제 농업박람회, 강진만 춤추는 갈매축제, 중국 국제도자기축제 등 국내외 축제장에서도 강진청자 홍보와 판매활동을 펼쳤다.



올해 열린 강진청자축제장에서 청자 등 도자기들을 둘러보고 있는 관광객들.

〈강진군 제공〉

강진원 강진군수는 “청자가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생활청자로 이용될 수 있도록 예술성과 실용성을 접목하고 있다”면서

“강진청자의 대중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금릉팔경’ 시인

김영근 선생을 말한다

10일 강진서 학술대회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강진에서 활동한 도학자 겸 시인 경희(景晦) 김영근(1865~1934) 선생 생애와 학문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경희선양회는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 강진군 강진읍 파머스마켓 대강당에서 ‘경희 김영근의 도학사상과 문학세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김희태 전남도 문화재전문위원이 ‘경희 김영근의 학통과 교유관계’를, 김봉근 원광대 교수가 ‘경희 김영근의 학문과 도학사상’을 발제한다.

선생은 조선 후기에 태어나 오남 김한섭, 중앙 김광묵 문하에서 수학했다.

위정척사 정신을 체득해 학문과 시작 활동을 하고 외세에 저항했다. 1906년과 1913년 두 차례에 걸쳐 북간도로 망명해 구국의 길을 모색했다. 그가 남긴 시문집은 6·25 한국전쟁 때 다수 유실됐다.

후손들이 유고를 수집해 ‘경희집’(景晦集)이라는 문집으로 전해오고 있다.

강진의 옛 이름인 금릉(金陵)을 따 빼어난 경치 8곳을 노래한 시 ‘금릉팔경’(金陵八景)이 널리 알려졌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전원주택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90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토리얼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